

광주일보·광주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

교과부 전국 23곳 선정

‘전통의 고교 명문’ 광주제일고와 광주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돼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 중 광주제일고와 광주고 등 23곳을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 수준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학교로, 각기 여건에 맞게 교육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 선발은 광역 단위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며 필기고사는 없다.

국립 공립 기본교과는 연간 수업 시수의 35% 범위에서 증감 운영하

고 선택 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하고 100%까지 초빙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 일수, 수업연한 등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연간 2억원을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 연수비 등으로 지원받으며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이나 지정취소 등을 하게 된다. 수업료는 일반 고교와 같은 수준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광주상일여고 등 전국에서 21개 고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했으며, 이들 학교는 오는 3월 첫 문을 연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모두 100개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할 계획이



아동 성폭력 추방합시다

최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내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아동 성폭력추방의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지만 따뜻한’ 1만원 장학금

호남대 조경학과 졸업생들 매월 적립 후배 지원

대학 후배들을 위해 선배들이 매월 1만원씩을 모아 장학금을 지급하는 ‘작지만 따뜻한’ 장학회가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만인 장학회’는 조경학과 졸업생들 중 장학회 취지에 공감하는 동문이 심시일반으로 한 달에 1만원씩을 모아 매 학기 선발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 3월 발족한 장학회는 올해로 4년째, 이 장학회를 창립한 조경학과 90학번 최철훈씨는 “우리가 모은 작은 정성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10명이 모여 시작한 장학회가 지

금은 40명으로 늘었다”며 “시작할 때 ‘장학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많은 동문들이 정성을 모아줘서 장학회로서의 기반이 잡혀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가장 형편이나 성적보다는 장학금 활용 계획이나 학생의 노력 등을 서류와 면접을 통해 평가해 결정하고 있다.

만인장학회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8명의 후배들에게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이번 장학금에도 2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2010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23일 호남대 학위 수여식 전 조경학과 강 의실에서 열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이무석교수 정년퇴임기념 세미나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이무석 교수의 정년퇴임기념 정신분석 세미나가 오는 27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남대 의과대학 덕재홀에서 열린다.

이날 정신분석 세미나에서는 이무석 교수(국제정신분석가)의 ‘한국문화와 정신분석: 정신분석은 한국인에게도 효과적인가?’라는 주제 강연과 함께 ▲심리적 관점에서 정신분석의 치료 효과(박민철, 원광대 정신과) ▲개인분석경험이 정신치료에 미



치는 영향(김미경, 김미경 정신분석연구소) ▲나의 분석 경험(조홍자, 중국연변 뇌과병원) 등이 소개된다.

이 교수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1972년)한 뒤, 전남대 교수(1980)로 출발, 한국정신분석학회장(1997~1999) 등을 역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특별반 꾸리고 교사 논술 전담팀...교육시스템 개혁 ‘명문 만들기’ 10년간 올인

목표 영흥고의 성공 신화

‘미운오리새끼에서 백조로...’ 한때 ‘비명문고’로 낙인찍혔던 목표 영흥고가 수년간의 교육시스템 개혁 작업을 통해 전남을 대표하는 명문고교로 새롭게 태어났다.

영흥고는 올해에만 5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남 일반계 고교 중 서울대 합격자 최다 배출학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252명의 고 3학생 중 연·고대 16명, 이화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수도권 대학 41명, 전국 의과대학 10명, 사관학교 4명, 교대·사범대 27명 등 전국 주요 대학에 절반이 넘는 131명을 합격시켰다. 이는 2000년도 초반 40명대에 머물던 합격자 수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0년만에 명문고로 재탄생한 영흥고의 비결을 살펴봤다.

◇학교를 완전히 뜯어 고쳐라=영흥고는 지난 99년 남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뒤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명문영흥 만들기’ 3단계 프로젝트를 구축했다.

2005년 목표의 고교 평준화 실시에 맞춰 명문고 만들기 1단계(2005~2007) 프로젝트로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학교’ 만들기에 올인했다.

우선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특별반을 꾸렸다. 1~3등급을 3개 반으로 나뉘어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국·영·수과 취약교과를 중심으로 집중 교육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대입제도 연구팀을 결성해 전국의 우수 학교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는 한편 인문과 자연 계열로 구분해 통합논술 전담팀 등을 구성했다. 이 밖에 교사와 학생간 1대1상담제도 운영, 국영수 교과 학년전담제, 1, 2학년 영어 집중 교육, 토론티 수업 구축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도입했다.

교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올해만 서울대 5명 합격 4년제 대학을 전남 1위

영·난방기를 전장형으로 교체하고, 책결상 등도 최신식으로 바꿨다. 이 결과 2005년에만 졸업생의 34%에 이르는 97명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그 여파는 다음해에도 이어져 102명이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라=영흥고는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한 ‘명문 영흥 만들기’ 1단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2008~2010)로 전체 학생의 성적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교감, 교감, 원로교사와 학습 부진 학생의 1대1 결연등을 통해 이들의 학

습 동기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또한 좋은 수업 특별 연구 교사제, 교사들의 자기 수업 되돌아 보기, 매 수업 질문시간 주기, PMP 이용 인터넷 강의 듣기,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추진 등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높아진 위상에 물러드는 학생들=영흥고의 성공 신화가 알려지면서 성적 상위 10%이내에 속하는 우수학생들의 입학률은 2007년도에 20%의 벽을 넘어선 뒤 2009년에는 30%까지 늘었다. 과거엔 영흥고 배정시 한숨을 내쉬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탈락하면 한숨을 내쉬게 된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교과부가 지난해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도 87.1%를 기록, 전남대 1위, 전국에서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목표사에서 수능 성적 우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금액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흥고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를 명문영흥 만들기 3단계 사업의 해로 잡고, 전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고교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영흥고 이창균 교장은 “전국을 대표하는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재단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목표=이성진기자 sslee@kwangju.co.kr

캠퍼스 소식

전남대 장애·외국인 학생 컴퓨터 설치

전남대가 장애학생과 외국인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습용 컴퓨터를 선보였다.

학생지원과와 정보전산원은 장애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정보전산원 109호 실습실에 이들을 위한 전용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장애학생 전용 컴퓨터의 경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컴퓨터 책상과 의자, 대형모니터, 터치모니터, 각종 장애자용 소프트웨어 및 보조용품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전남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정보전산원에 영어버전 소프트웨어와 중국어버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외국인 전용 컴퓨터를 각각 2대씩 설치했다.

광주여대-뉴욕파이 에듀케이션 협약



광주여대(총장 오장원)는 최근 교내 무등관 대회의실에서 뉴욕파이 에듀케이션그룹(NYP Education Group, 이기철 대표)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재반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여대와 뉴욕파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광주여대 교수진과 재학생의 미국 진출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고 재학생을 위한 미국 연수, 캠프, 인턴십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파이 그룹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 강남, 중국 청도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여학원·영어교육·기업체 영어캠프·관리형 조기유학·보딩스쿨·영어 커리큘럼 개발 등을 하는 영어교육 전문기업이다.

조선대 치과대학 아동문화프로그램

조선대 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이사장 김수관)이 어린이재단광주지역본부와 손잡고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10년 아동문화체험프로그램 ‘함께 가는거야 ~ Happy Together’ 행사를 마련했다.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행사는 소외계층 초등학생 28명, 치과대학생 12명, 후원자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교육, 치과병원 견학, 광주페밀리랜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광주은행에서 ‘경제야 ~ 놀자’를 주제로 경제교육을 받고 조선대 치과병원을 견학한다. 오후에는 광주페밀리랜드에서 스케이트와 놀이기구를 타고 해양전시관을 둘러보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각보다 평미인 좋은 비누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주요성분**

-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상담문의 ☎ 010-3231-3665

광주랜드3 고시학원

http://kwangju.land3.co.kr

농산물 품질관리사

친환경 웰빙시대 최고의 자격증!

개강 3월 2일 **국비환급 100%**

| 시험일정 | 특 전 |
|-------------------------------|--|
| 5월 9일 (법정, 유통, 원예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등급판정(고소득 보장) ■ 중앙회, 지역농협 공채시험 가산점 5점 ■ 공무원, 농업관련 직종 응시시 가산점 3점 ■ 관련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 채용시 채용업체에 자금지원 |

☎ 529-8838

농성동 광안고가 옆 삼애신협 2층

제3종 (자동차 대인·대물) 손해사정사

시험확정발표 4월 25일(1차)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1회 보험심사역

개강 3월 2일 *국비지원·고용보험환급

*농품사시험일 평일반 (2010년 5월9일) 주말반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상담문의 ☎ 361-8110

농성동 서구청앞 광주은행 2층

경찰교육의 명문

김재규

경찰학원의 합격신화는 계속된다!

원장, 경찰학 박사 김재규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합격회원제(5년) | 1년 회원제 | 6개월 회원제
이론중합반 | 문제풀이반

최고의 시설

KPA 싱글하우스 | KPA 독서실 | 무료 동영상실 | 무료 자습실 | 편안한 휴게실 | 체력단련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 062)236-3112 | 전남여고 후문 앞